

# 현대패션에 나타난 잔혹성 이미지 연구

- 크리스테바(J. Kristeva)이론을 중심으로 -

윤영\* · 양숙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졸업\*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20세기 후반 예술의 전반적인 흐름이 미적 다원주의와 해체주의를 지향하게 되자 패션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의 현상으로 잔인하고 혐오스러우며 끔찍한 추의 미가 표현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고 있는 잔혹한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며 이와 같은 양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과 적용시켜 고찰하였다.

먼저 잔혹성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예술을 통한 잔혹성이란 일반적인 잔혹성의 이미지인 폭력이나 분노담의 이미지, 또는 자아의 형이상학적 이해뿐만이 아닌, 예술을 발생시키는 인간과 공간의 표현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잔혹성의 표현은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시각예술 분야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비언어적 요소 중에서 특히 시각 정보들을 메시지 전달의 주요소로 이용하고 있는 신체를 통해 가장 훌륭하게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잔혹성의 특징을 신체에 표현된 방식에 따라 신체 파괴, 신체 변형, 그리고 배설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첫째로 신체 파괴는 신체의 유약성과 신체 범위 확장을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사용해 파괴시키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둘째 신체 변형은 의도적으로 신체를 과장하거나 왜곡시킴으로 신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이탈함으로써 신체의 경계를 전복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를 통해 배출되는 더럽고 혐오스런 배설물과 자연적인 것을 변형시킴으로 양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여겨지는 음식물을 통해 오늘날 잔혹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잔혹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여성에 관한 이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그녀는 여성의 양성특질로 인해 발생하는 남근에의 끝없는 욕망과 맹목적 집착을 설명하

며 그로 인한 여성의 특성을 사도-마조키즘으로 설명한다. 또한 오이디푸스 단계에서 어머니와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발생하는 특징들을 애브젝션으로 설명함으로써 비친하며 동시에 공포감을 주는 존재인 여성을 규명한다.

이러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여성의 잔혹성에 대한 설명을 토대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잔혹한 이미지를 사도-마조키즘과 애브젝션으로 범주화하여 고찰하였다.

첫째, 패션에서의 사도-마조키즘은 여성을 가학, 피학적인 존재로 나타내기 위해 폭력과 파괴의 이미지로 표현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성은 타자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동시에 자학적인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남근 결핍의 대가를 치루어 남성과의 동등함을 획득하고자 한다. 둘째, 코라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발생된 애브젝션은 여성, 어머니를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서 나타내기 위해 불쾌한 소재로 여성 의복을 치장하고 표현한 것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애브젝션은 모호한 경계가 주는 공포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객체는 자신의 완전한 분리와 존재성 확립을 위한 행동으로 주체, 즉 모체를 혐오스럽고 비친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한다.

오늘날 잔혹성은 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인간의 심리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본성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이다. 패션이란 다양한 예술 중에서도 인간의 욕구와 사회, 문화적 분위기 및 미적,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시각적 도구이다. 따라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잔혹한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이 시대의 잔혹성에 관한 인식과 그 표현양상을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자 잔혹성의 미적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